

무너진 기초 질서

무단 횡단·신호 위반

신호대기 1분도 못참는 '준법 불감증'

비가 내린 1일 오전 9시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도청 분수대에서 전남 대법원 4거리로 빠져나가는 2차선 일방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 옛 전남도의회 방면과 구시청·충장로 쪽을 오가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심권의 대표적인 횡단보도다.

본보 취재팀이 30분 동안 확인해 본 결과 1분14초만 기다리던 커지는 초록 불(보행신호)을 기다리지 않고 18명의 보행자가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넜다.

이 바람에 이 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급정거를 하는가 하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보행 신호가 켜졌는데도 횡단보도를 질주하는 신호 위반 운전자들도 많았다.

다른 곳의 사정도 비슷했다. 금남로 1가(왕복 5차선) 일대에는 지하도를 통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데도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그리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정차 중인 시내버스에 가려 무단횡단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차들이 급정거를 하는 아찔한 순간도 많다. 이 때문에 운전자와 보행자들 사이에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정문 앞 도로도 무단횡단하는 시민들을 피해 차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대표적인 도심 도로다.



비가 내린 1일 오전 광주시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정문 앞 도로. 무단횡단하는 시민들로 달리던 차들이 빗길에 급정거를 하는 등 아찔한 순간이 잇따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보행자 빨간 불 무시한 채 위험한 횡단 차량들 신호 아랑곳 않고 아찔한 질주

을 4월말 현재 현재 광주·전남에서 무단횡단으로 적발된 사례는 500건, 지난해 같은 기간 132건에 비해 무려 5배나 늘었다. 울며 말로 보행자 교통사고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4% 증가한 1천 146건으로, 82명이 숨지고 1천135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에는 1천83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해 53명 사망, 1천96명이 부상을 입었다. 무단횡단에 대한 별도 통계가 없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지만 사망·중상 사고의 60~70%가 무

단횡단으로 인한 것이라는 게 경찰 분석이다. 운전자들의 신호위반도 올해에만 6천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2천864건에 비해 2배가 넘어섰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도로를 감시할 수 없고, 그 어떤 시설과 감시 카메라도 무단횡단과 신호위반을 막을 순 없다"며 "시민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정부 주관 보안감사 광주시 국무총리 표창

광주시가 정부주관 보안감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8개 시·도와 5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 감사결과 광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최근 실시한 일반·전산·통신·지리정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보안감사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및 해킹 방지대책 마련 등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영산강에 대규모 물억새밭 조성

22만㎡에 자생식물 심어 생태하천 복원키로

광주시에 영산강에 대규모 물억새밭을 조성, 생태하천으로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시는 1일 "영산강 어등대교에서 서구 벽진동 배수문에 이르는 3.9km 구간 고수부지 22만4000㎡에 자생식물인 물억새를 식재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갯벌들 1만5372그루, 줄포 등을 이 구간 하안부에 심어, 하천 생태계 복원을 꾀하고 있다.

어등대교~벽진동 구간 영산강 고수부지는 오랫동안 농경지로 이용돼

토사 오염과 수질오염이 극심한 곳으로, 시는 이 구간의 경작지·잡초·외래식물 등을 제거하는 등 하도 정비를 최근 완료했다.

시는 이어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 과정에서 제거한 물억새 등 자생식물을 이곳에 이식한 것이다.

시는 역새밭이 조성되면 방치된 영산강 둔치가 철새들의 보금자리로 새롭게 태어나고 시민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치수대책 사업

으로 제거할 수 밖에 없는 물억새와 갯벌 등 자생식물을 하도정비 완료 지역에 이식했다"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황룡강 치수대책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내년 말까지 총 연장 27.7km를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8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주최한 친환경하천정비 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시청앞 미관광장 생태숲으로 가꾼다

광주시는 1일 시청 앞 미관광장(2만111㎡·폭 48m·길이 443m)을 생태 숲으로 바꾸기로 하고, 조감도를 공개했다. 시는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이 광장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소나무 300그루·단풍나무 200그루 등을 심어 내년까지 도심 숲으로 조성한다.

광주 청소년 성문화센터 내일 개소

유동 YWCA 7층에

'광주청소년성(性)문화센터'가 3일 오후 광주시 북구 유동 광주YWCA 7층에 문을 연다.

센터는 연면적 330㎡ 규모로 만남방·탄생방·성장방·자궁방·임신·출산·피임·낙태·사회속의 성문화 등 크고 작은 체험실로 구성돼 있다.

센터는 또 잘못된 성지식과 왜 청소년들을 위해 신체모형을 그대로 만든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갖추고 있다.

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성지식을 전달하고 성희롱과 성폭력·성매매 등 성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교육하게 된다.

유지원씨에서부터 초·중·고·

대학생,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 부부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방문해 성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학교나 사회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출장교육도 하며, 연간 2만여명에게 성교육을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은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 임우진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박원 시의회 의장 등 150여명이 참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센터에는 영상물을 통한 성문화읽기, 만남과 사랑, 임신 출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면서 "성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북구 중흥·우산·문흥동 내일 8시간 급수 중단

광주시는 1일 "상수도 용연계통 수계변경에 따른 공사로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동안 북구 일부지역에 급수가 중단되거나 흐린 물로 인하여 수도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북구 중흥·우산·문흥동 일대 1만4000여 세대이다.

시는 이번 공사에서 용연정수장에서 생산하여 직접 급수하던 수도물을 각화동 배수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전환하고, 수도관도 함께 세척한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동구와 북구 대부분 지역은 12시간 정도 수도물 생산이 중단돼 배수지에 저장된 물을 이용하여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흐린물로 인한 불편 또한 줄게 된다.

수도물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수도본부 시설관리소(366-0713)나 북부사업소(613-6445)로 연락하면 된다.

/김주정기자 jjnews@

불법광고 수거해 오면 봉사활동 인정

서구청, 학생 준법정신 함양 참여활동 연말까지 실시키로

광주시 서구는 1일 광주 시내 주요 도로가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본보 1일자 1면)에 따라 중·고생들의 불법 광고물을 봉사활동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서구는 학생들이 A4 크기의 유해전단지 100매, 명함형 전단지 150매, 현수막 5장(1m×5m)

을 구청으로 직접 가져오면 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환산해준다. 가토수·건물담벽·버스승강장 등에 부착된 현수막·벽보·청소년 유해 광고물이 그 대상이다.

지정 계시관에 게재된 전단은 회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청에 접수한 내용은 해당 학교로 직접 통보한다.

불법광고물 정비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은 서구청 도시개발과(360-7256)로 문의하면 된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2006년도 大洲建設(株)

우수협력업체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주)신용토건	대표이사 박용범	(주)삼원테크	대표이사 조홍식
(주)금일건설	대표이사 이동구	(주)서원전기	대표이사 박중환
대성산업(주)	대표이사 정광우	이인이앤씨(주)	대표이사 오기남
(주)대연넥시스	대표이사 최민호	피에스건설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최종원
(주)동광그린도어	대표이사 김종휘	(주)한국우드	대표이사 민현기

대주건설의 새로운 아파트
대주 피오레